

신입 온보딩 개선 및 환영 키트 도입

회의 내용

다음 안건 넘어갈게요. 신규 입사자 온보딩 프로세스인데요, 최근 입사한 신입들 피드백을 종합해보니까, 첫 주에 너무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소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. 특히 시스템 계정, 복지 안내, 팀별 프로세스 등등이 동시에 설명되니까 정리가 안 된다고요.

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게, '신입 주간 체크리스트' 형태로 각 항목을 시간 순서대로 분배해서 전달하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첫날은 사내 시스템 계정 등록, 둘째 날은 복지 가이드 오리엔테이션, 셋째 날은 팀 배정 후 온사이트 투어 이런 식으로요.

그것도 좋고, 제가 보니까 동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사내 위키에 올리면 반복해서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. 꼭 똑같은 설명 계속 안 해도 되고요.

좋은 의견이에요. 그럼 "신입 환영 키트"에 안내지랑 영상 링크 QR코드도 포함해서 구성해보죠. 지금은 텀블러랑 마우스패드만 들어있는데, 실용성도 살리고 정보도 전달하면 좋죠.

일단은 온보딩 개선안은 이 흐름으로 잡고, 다음 주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고 실제 적용은 다음 입사자부터 해보죠. 다음 입사 일정이 언제죠?

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. 신입 개발자 한 명, 기획팀 한 명 예정이에요.

회의 요약

• 신입 온보딩 개선안:

신입 직원들이 첫 주에 정보 과부하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"신입 환영 키트"를 도입합니다.

• 주간 체크리스트: 첫날 시스템 계정 등록, 둘째 날 복지 가이드 오리엔테이션, 셋째 날 팀 배정 후 온사이트 투어 등 시간 순서로 분배된 항목을 포함합니다.

• 멀티미디어 자료: 짧은 동영상으로 설명을 제공하고, 사내 위키에 QR코드를 통해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.

• 환영 키트 구성: 안내지, 영상 링크, QR코드를 포함한 실용적인 아이템(텀블러, 마우스패드 등)을 추가합니다.

- 실행 계획:
- 프로토타입 개발: 다음 주까지 완료하여 테스트.
- 실제 적용: 5월 말 예정된 신입 개발자 및 기획팀 대상으로 도입.
- 다음 단계:
- 온보딩 개선안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, 팀별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.
- 사장님,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릴게요.

추가 질문:

- "신입 환영 키트"에 포함할 추가 아이템은 무엇이 있을까요?
- 팀별 맞춤형 콘텐츠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?

참고:

- 예정된 입사 일정: 5월 말 (개발자 1명, 기획팀 1명).
- 목표: 신입 직원의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, 조직 소속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